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7호 【루계 제25400호】 주제 105 (2016)년 9월 13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을 현지
지도하시였다.

황병서 동지, 오수용 동
지, 조용원 동지, 한광상 동
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에서 해당 단위와 농장
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
불휴의 로고와 헌신이 뜨겁
게 이어져있는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을 여러차례나 현지
지도하시면서 나라의 종합
적인 종자연구개발기지로
올곧게 꾸려주시였으며
온 나라에 이 농장을 따라
배우기 위한 불길도 지펴
주시였다.



강냉이 품종에 비해 생육기
일이 짧기 때문에 알곡 대
알곡을 위주로 하는 두벌농
사를 하는데도 아주 적합한
품종이라고 하시면서 특히
정보당수확고는 기성년
을 초월한다고 말씀하시
였다.

알그루로 밀을 심고 뒤
그루로 새 품종의 강냉이를
심으면 가장 불리한 조건
에서도 정보당 10여%의
알곡은 문제없이 생산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농장의 일군들과 연구사
들이 오래동안 고심어린 탐
구와 열정을 다 바쳐 수확
고가 높으면서도 가을과 병
충해를 비롯한 여러가지 피
해에 잘 견디는 우량품종의
말벼도 육성해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는 1116호 농장에서 이룩
한 자랑찬 성과는 우리
당의 종자혁명방침의 승리

특히 지난해 8월 이곳을 찾으시고
농장의 일군들, 당원들, 근로자들이
탕중양의 시험농장에서 일하는 금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 나라의 기
후풍토에 맞는 우량품종의 작물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장
의 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
하나 풀어주시였다.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와 1116호
농장의 일군들, 당원들,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신 전투적
파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현대적인 온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세웠으며 새 품종의 강냉이와 말벼
종자를 육성해낸것을 비롯하여 당의 종자
혁명방침관철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농장에서
새로 육성해낸 강냉이와 말벼종자에
대한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올해에 수확한 다수확품종의
농작물들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팔복같은
강냉이와 총알같이 여문 벼이삭을 비롯한
농작물들을 환한 미소속에 보시면서 정말

희한하다고,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고 하시
면서 이 농장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볼 때
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수확고가 높은 새 품종의 농작물
들은 농장의 일군들, 당원들, 근로자들의
불타는 애국심이 낳은 자랑찬 열매라고
하시면서 한평생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굶은날, 마른날 가림
없이 농장길, 포전길을 걸고걸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 육성해
낸 다수확품종의 농작물들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농작물
시험 및 재배조건과 온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육종사업정형을 구체적
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농장에서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조건에 맞고 수확
고가 대단히 높은 밀집형 다수확강냉이
품종을 새로 육성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새 품종의 강냉이는 키가 작은것으로
하여 비바람에 잘 견딜뿐만 아니라 다른

라고 하시면서 새 품종의 강냉이와 말벼
를 육종해낸 일군들과 과학자, 연구사
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대적인
온실에서 시험재배하고있는 여러가지
농작물들도 보여주시며 1116호 농장의 물
질기술적조도를 더욱 튼튼히 다져주자고
하시면서 최첨단기술이 도입된 현대적인
온실을 자신께서 또 하나 일떠세워주시
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116호농장에서 새로 육종한 다수확품종의 강병이와 발벼에 대한 원종생산체계, 재종체계, 종자공급체계 등을 철저히 세우데 대한 문제, 농장을 첨단농업과 학연구중심지로 전변시킬데 대한 문제, 과학자, 연구사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연구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 등 농장 앞에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눈썹이 아

독하게 펼쳐진 풍요한 농장방을 바라보시며 최근년간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농장에서 당의 명도민에 종사 혁명방향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다수확품종들을 육종하고 생산에 도입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특히 농업전선에서 용장훈을 부풀수 있는 강병이, 발벼종자들을 육종해낸것이 무엇보다 기쁜 일이라고 하시면서 새 품종의 강병이 이름을 몸소 <평양9>호라고 명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종

사 농장에서 담이 준 과업을 결사관철하여 다수확품종들을 육종해냄으로써 가까운 년간에 당에서 정한 일과생산 고지를 절정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고 거듭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사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원하지대본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자면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 당은 농업전선을 경제강국건설의 주력방향으로 규정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면 경지면적이 제한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종사혁명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비료를 적게 요구하면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내는 품종, 가을과 비바람에 의한 피해, 병해와 고온피해, 병충해에 견딜성이 강한 우량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해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농장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종사혁명방향을 관철에서 기술, 선봉대로

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와 1116호농장의 일꾼들과 과학자, 연구사,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불멸의 명도자욱을 새기시며 나아가길 휘황히 밝혀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세계적수준의 우량품종들을 더 많이 육종하여 사회주의협동농장에 황금이삭이 실리게 하고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우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

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시정지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어왔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마뚝한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당신께서 나의 생일 51돌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따뜻한 축전을 대단히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나는 우리 인민에 대한 당신의 진실한 감정과 우리 인민이 평화와 안정을 누리기를 바라는 당신의 마음에 시의를 표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데오와 그 세력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싸우는 우리를 지지해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나는 우리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해주시고 우리 나라가 시련을 이겨내며 안전과 안정을 누리기를 바라는 당신의 변함없는 입장을 매우 귀중히 여깁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 것을 축원합니다.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6년 9월 11일
디마스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평강고기가공공장에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명도 김정은동지의 사색으로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조국>을 평강고기가공공장에 모시였다.
모자이크벽화는 혁명의 성신 배후선에 오르시어 주체조선의 창당한 미래를 촉부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이 승연하게 형상되어있다.
백두산절세위원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명도따라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려는 평강군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922건설동력대원들의 역활발현의 신념과 굳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조선식당 12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와 박정남 강원도당위원회 위원장, 평강군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평강고기가공공장 종업원들, 922건설동력대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기남동지가 은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세 조국건설의 그 비쁘신 속에서 주체 37(1948)년 8월 본계연선지대의

정강방을 몸소 찾으시고 압록강을 높이는데 힘써주시고 함께 축산업 발전시키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가렬지같은 전하의 나날 승리한 조국의 매일을 내다보시고 세로풍란을 개간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후에 집정권을 맡아 기르는데를 비롯하여 군이 나아가길 앞장서서 밝혀주시고 그날을 기다렸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머니이수영님의 뜻을 높이 받들어 세로풍란을 개간하여 축산업에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나서시는 방향과 당도를 밝혀주시고 은은이던 조치들도 거듭 위배하시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송고한 영혼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로풍란을 일지의 대구 모축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명도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지난날 불모의 땅으로 버림받던 세로풍란이 사회주의대축산지로 나아가 훌륭하게 변모되고있는 오늘의 경이적인 현실은 한평생 이인 위업을 파수명으로 삼으시고 세로풍란의 축산업발전을 위해 불분별의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백두산 청년강국의 태양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자나깨나 항상 뵈고싶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역사적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재중조선청년련합회대표단 성원들은 조국을 떠나기에 앞서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싶이 삼가 편지를 올립니다.
백두산청년강국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성대히 지행된 청년동맹 제9차대회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김일성-김정일주의의지를 높이 휘날리며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 500만 청년전위들의 역사의 신념과 의지를 만방에 힘있게 과시한 영광의 대회, 승리의 대회였습니다.
우리들은 대회장에서 청년운동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고 또 우러르며 원수님께서 계시고 원수님의 사랑과 의지로 숨쉬며 원수님의 두리에 성벽을 이루고 원수님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영웅청년대군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무너진것이 없고 꽃피는일이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요 신념을 굳게 간직하였습니디.
우리들은 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해외동포들을 얼마나 극진히 아끼주시고 뜨겁게 사랑해주시는가를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깊이 절감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역사적인 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우리 재중조선청년들을 불러주시었다는 품만 같은 소식이 전해 온 순간부터 대회장 면에서부터 끝까지도 그대 원수님을 뵈옵고 싶고 있는 간절한 희망을 심장속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하고 달려온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수님의 가슴속으로 헤아리시어 우리 대표단 단장을 영광의 대회주석단에 세우주시고 축하연설도 하도록 베풀어주시고 눈부신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회장에서 거듭 뜨겁게 손을 잡아주시었음뿐 아니라 저희들을 향하여 따뜻한 마음이 손이주시며 저희들을 축하해주셨습니디.
이세 그만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삼가 올리는 축기도 몸소 받아주시어 귀중한 말씀도 주시고 자신의 바로 열자리에 우리들을 세워 영광의 기념사진촬영도 해주신 최상최대의 믿음과 사랑을 가슴속으로 안겨주시었습니다.
솔직히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의 상징자들과 인공위성과 수조만을 만들어 내고 전라관수함 탄도관수중시합발사성공에 기여한 청년과학자들을 비롯하여 우리 원수님께서 내세워주시고 축하해주고싶으신 청년대표들이 얼마나 많고 많았는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조국일에 별로 해놓은 일도 없는 저희들을 태양의 품에 안아 온 나라 청년들과 세상사람들앞에 크게 내세워주시었으니 세상에 사람이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영광이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알아안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우리 재중조선청년련합회뿐만이 아닌 전체 재중동포들과 해외동포들이 받아안은 사랑이고 영광입니다.
이영광을 위하여 수령님들과 똑 같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은 전체 해외동포들, 이나 온 민족이 안겨살 위대한 어버이의 품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중정의 열기로 새창이 열어버린 대외기간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조선청년운동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삶과 투쟁의 유일한 라침관으로 삼고 전진해나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 심장속에 오직 당의 붉은 피만이 흐르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김비랑정신을 뼈에 새긴 청년강국의 주인품들을 보았습니다.
백두 부처지고 몸이 찢겨 가루가 된다 하여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원수님의 두리에 헌신합의 성사, 발레로 굳게 뭉치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

우는 행복보다 더 위대한 조국청년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보았습니다.
력명기려건설장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을 받들어 성원의 열정 끓어넘치는 격정장들마다에서 자강력제일주의의지를 높이 들고 산도 허물고 바다도 매워버리며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는 만리마사대 청년강국의 무궁무진한 힘과 용기를 심장에 새겨안았습니다.
수령정사용위정신, 백두산영웅청년정신으로 만장약하고 우리 당이 정해 준 철로따라 언제나 끝까지 목숨까지 바쳐나가는 조국청년들의 모습에서 온 세상이 부러움에 겨워 숨겨지는 사회주의강국을 보았고 험된 망상에 오 뉴월의 개굴만 꾸민 적대세력들의 가련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가슴속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명도따라 주체혁명위업 수행의 방장부대로 위용면치는 조국청년들과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청춘을 빛내일 불타는 결의로 충만되어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베풀어주시고 그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감격의 눈물만을 흘리는 송사만이 아니라 후정으로는 모담의 한길만을 걸어 나가는 원수님의 해외전사, 민족의 아들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백두산3대강국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여있는 백두산하늘아래에 사는 후손담에 김일성공공화국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풍상을 더욱 정중히 모시고 목숨으로 보위하며 항일혁명정적지와 시적들을 잘 보존관리하고 영히 빛내여나가는 사명을 앞장서나갔습니다.
우리들은 청년들을 제1호 아끼고 사랑하시며 청년들을 믿으시고 내 조국의 창당한 미래를 앞당겨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동포청년들속에 널리 전진하여 원수님 숭배열기를 고시시켜나갔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불도 없는 백두산청년강국의 해외조선청년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한사람의 공민청년이라도 더 찾아내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재중조선청년련합회를 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담고 오직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김정은해외청년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갔습니디.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민족자주와 민족대단정의 기치높이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선봉대가 되며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를 안고 사회주의조국의 통일명령을 위한 애국위업에 실천으로 목숨있게 이바지해나갔습니다.
만약 미제가 어머니조국땅에 또다시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1950년대의 할아버지, 아버지세대처럼 헌신합의 열매를 맺어 조국의 500만 청년들과 함께 혁명대가 되어 우리 운명의 태양을 견사용위하며 새로운 전승신화를 창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조국을 떠나갈 시간이 다가올수록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더욱 가슴속에 사무치며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멀리 이역명에서 조국을 그리며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민족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재중조선청년련합회대표단 성원들과 전체 재중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백두산청년강국의 찬란한 태양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주제105(2016)년 9월 6일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참가한 재중조선인
청년련합회대표단일동 올립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어머니당, 사회주의 우리 제도가 세상에서 제일! 당중앙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전화위복의 새 기적을 안아오리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에 접한 북부피해지역 주민들과 온 나라 일군들과 인민들의 걱정의 목소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당의 정치는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이다.》
위대한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어머니당이 있어 우리는 미래를 낙관한다

전승준 함북도당위원회장은 큰물 피해를 입고 푸거운 마음을 안고 있을 때 힘과 용기를 안겨준 혁명투쟁 발사령에서의 성공소식에 이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고 보니 피폐해진 주민들을 위해 마음을 쓰시고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영상이 어려울 눈시울을 적시고 또 적시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 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피폐해진 인민들이 얼마나 걱정하셨으면 려명거리건설장을 비롯하여 200일전투의 주요전역들에 전개하였던 주력부대들을 북부피해지역으로 급파하시고 전군, 전민, 전인이 총력을 집중하여 대한 중대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것이었으니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대용단이다.
정말 우리 인민은 더욱더 이어 수렁복을 누비는 복받은 인민, 수렁복을 타고난 인민이다. 우리는 북변방의 건설한 인민들이 오늘날의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한번 일어서리라 하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에 화답하여 도인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괄해서 추위와 오기 전에 살림집건설을 완공하여 새집들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술길이 자지꾸락 막히는 당중앙위원회 호소 문은 우리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으며 온 나라를 새로운 기적창조의 열풍으로 세차게 끓어오르게 하고있다.

어머니당이 있어 우리는 미래를 낙관한다

그 사랑, 그 믿음에 이 한올 장그러 바쳐서라도 보답할 힘과 용기가 솟아올랐다. 인민에 대한 무한대한 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대용단이다.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민의 영도자라는 모시고있는가 하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이 막 북부어오른다. 피폐복구를 최단기간내에 끝내는데 대한 당의 호소를 심장에 새기고 피폐복구에서 관리국이 맡고있는 총나부생산계획을 최단기간내에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생산조직과 전주시회를 짜고들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용대한 구상대로 북변방에서 로동당반세소리, 사회주의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겠다고 피력 하였습니다.

회한 전편이 일어났었다. 루산광산련합기업소 불분공장 동동자 리훈수는 큰물피해를 입고 보니 앞길이 막막하고 너무도 억이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아 자식들이 불세라 불세 눈물까지 흘렸다. 그러나 이제는 비판하지 않는다. 당중앙위원회 호소문까지 받아안고 너무도 기뻐 자식들에게 우리에게는 온 나라 아이들을 친자처럼 돌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계시어 지도 생각하고 세상에 나온 온갖이 없다고 이야기해주었다고 정신을 리쳐놓았다.

어머니당이 있어 우리는 미래를 낙관한다

무산군 읍립동농장 제2작업반장 황순희는 큰물에 집이 떠내려가고 땅을 밟아 가려는 농작물들이 하루이침에 매몰되는것을 보면서 정말 억이 막혔다. 집을 지을 걱정, 배물된 땅을 복구할 생각에 걱정이 깊었는데 원수님께서 우리가 겪고있는 고통을 다 아시고 중대조치를 취해주셨으니 이제 무슨일이 불리해보여 달라할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걱정할것이 하나도 없다고 피력 하였습니다.
온성군 남양로동자구 26인민반 부양가 박현희는 이번에 큰물피해로 한지에 나갔고보니 너무 억이 막혀 온 가족이 손뼉을 놓고 한달을 기다리고있다. 그런데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읽고 온 가족이 너무도 기뻐

눈물을 흘리었다고 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 나라를 지키어 할 인민군대까지 온다니 정말 우리 당이 제일이라고 격조높이 말하였다.
온성군 남양로동자구 29인민반 부양가족 오은희는 큰물에 집을 잃고 고보니 얼마 다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니당이 있어 우리는 미래를 낙관한다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듣고 온 가족이 너무도 기뻐 서로 부둥켜안고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계시어 지도 생각하고 세상에 나온 온갖이 없다고 이야기해주었다고 정신을 리쳐놓았다.
회령시 덕흥초급중학교 교원 조영철은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이 나오 오고 200일전투의 주요전역들에 전개되었던 주력부대들이 피폐복구 전선에 급파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 반세를 부르고 좋아라 손뼉을 치는 교원들과 학생들의 모습에서 우리 사회주의의 고마움을 전부 느꼈다. 전심전신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대를 이어 이어 전해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회령시 망양동 11인민반 부양가족 김복신은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들으며 울었다. 그저 당에 호소문을 의탁하고 당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마을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였는데 굳게 내 말이 딱 들어 맞았다. 70살인 내가 건설에 나가 살림을 해야 얼마나 하고 흥분을 날려야 얼마나 나르겠는가, 그러나 피폐복구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에게 원수시업이라도 성의껏 하겠다고 결정을 리놓았다.

어머니당이 있어 우리는 미래를 낙관한다

연사군화학공장 로동자 김철산은 큰물로 한지에 나갔고보니 눈이 캄캄하여 살아갈 길을 생각하며 걱정 속에 밤을 보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꽃강영이와 감자로 끼니를 예우면서 이제내저지나 구진의 손잡이 바라고있었다. 그러다가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볼수록 더 절절히 믿는다. 이 고고들며 피폐복구를 위한 자재와 살인 이제 다시 큰물이 닥쳐온데도 무서울것이 없다.
연사군 읍립동농장 농장원 홍영철은 연사명이 천지개벽될 날이 멀지 않았다. 온 나라를 피폐복구전투에 총동원하는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읽은 우리들뿐 아니라 온 나라 인민들에게 우리 당이 어떤 정의를 더욱 특별히 알리고 있다. 앞으로 사회주의선진마을에서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막 성가다 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에 우리가 복으로 되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절절히 말하였다.

일심단결은 조선의 힘, 기적창조의 원동력

박래성 평남도당위원회장은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고 후심한 피해를 입고 한지에 나앉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있는 피폐지역 인민들격으로 우리 당의 호소문을 접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희망 하늘을 우리 머리 위로 그려가며 최정발하여 하루빨리 피폐지역을 복구하겠다고 하면서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재양을 당한 때로부터 우리 무산광산 로동자구를 위해 마음쓰고계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생각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잊어본적이 없었으니 이렇게 중대조치까지 취해주실것은 정말 놀랐다. 정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품은 온 나라 인민들이 인정을 영한 행복의 소문에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희정 평남도당위원회장은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고 후심한 피해를 입고 한지에 나앉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있는 피폐지역 인민들격으로 우리 당의 호소문을 접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희망 하늘을 우리 머리 위로 그려가며 최정발하여 하루빨리 피폐지역을 복구하겠다고 하면서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김희정 평남도당위원회장은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고 후심한 피해를 입고 한지에 나앉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있는 피폐지역 인민들격으로 우리 당의 호소문을 접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희망 하늘을 우리 머리 위로 그려가며 최정발하여 하루빨리 피폐지역을 복구하겠다고 하면서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김희정 평남도당위원회장은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고 후심한 피해를 입고 한지에 나앉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있는 피폐지역 인민들격으로 우리 당의 호소문을 접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희망 하늘을 우리 머리 위로 그려가며 최정발하여 하루빨리 피폐지역을 복구하겠다고 하면서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김희정 평남도당위원회장은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고 후심한 피해를 입고 한지에 나앉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있는 피폐지역 인민들격으로 우리 당의 호소문을 접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희망 하늘을 우리 머리 위로 그려가며 최정발하여 하루빨리 피폐지역을 복구하겠다고 하면서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김희정 평남도당위원회장은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고 후심한 피해를 입고 한지에 나앉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있는 피폐지역 인민들격으로 우리 당의 호소문을 접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희망 하늘을 우리 머리 위로 그려가며 최정발하여 하루빨리 피폐지역을 복구하겠다고 하면서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김희정 평남도당위원회장은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고 후심한 피해를 입고 한지에 나앉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있는 피폐지역 인민들격으로 우리 당의 호소문을 접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희망 하늘을 우리 머리 위로 그려가며 최정발하여 하루빨리 피폐지역을 복구하겠다고 하면서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김희정 평남도당위원회장은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고 후심한 피해를 입고 한지에 나앉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있는 피폐지역 인민들격으로 우리 당의 호소문을 접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희망 하늘을 우리 머리 위로 그려가며 최정발하여 하루빨리 피폐지역을 복구하겠다고 하면서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김희정 평남도당위원회장은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고 후심한 피해를 입고 한지에 나앉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있는 피폐지역 인민들격으로 우리 당의 호소문을 접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희망 하늘을 우리 머리 위로 그려가며 최정발하여 하루빨리 피폐지역을 복구하겠다고 하면서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김희정 평남도당위원회장은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고 후심한 피해를 입고 한지에 나앉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있는 피폐지역 인민들격으로 우리 당의 호소문을 접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희망 하늘을 우리 머리 위로 그려가며 최정발하여 하루빨리 피폐지역을 복구하겠다고 하면서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김희정 평남도당위원회장은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고 후심한 피해를 입고 한지에 나앉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있는 피폐지역 인민들격으로 우리 당의 호소문을 접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희망 하늘을 우리 머리 위로 그려가며 최정발하여 하루빨리 피폐지역을 복구하겠다고 하면서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김희정 평남도당위원회장은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고 후심한 피해를 입고 한지에 나앉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있는 피폐지역 인민들격으로 우리 당의 호소문을 접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희망 하늘을 우리 머리 위로 그려가며 최정발하여 하루빨리 피폐지역을 복구하겠다고 하면서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김희정 평남도당위원회장은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고 후심한 피해를 입고 한지에 나앉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있는 피폐지역 인민들격으로 우리 당의 호소문을 접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희망 하늘을 우리 머리 위로 그려가며 최정발하여 하루빨리 피폐지역을 복구하겠다고 하면서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김희정 평남도당위원회장은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고 후심한 피해를 입고 한지에 나앉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있는 피폐지역 인민들격으로 우리 당의 호소문을 접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희망 하늘을 우리 머리 위로 그려가며 최정발하여 하루빨리 피폐지역을 복구하겠다고 하면서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김희정 평남도당위원회장은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고 후심한 피해를 입고 한지에 나앉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있는 피폐지역 인민들격으로 우리 당의 호소문을 접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희망 하늘을 우리 머리 위로 그려가며 최정발하여 하루빨리 피폐지역을 복구하겠다고 하면서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김희정 평남도당위원회장은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고 후심한 피해를 입고 한지에 나앉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있는 피폐지역 인민들격으로 우리 당의 호소문을 접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희망 하늘을 우리 머리 위로 그려가며 최정발하여 하루빨리 피폐지역을 복구하겠다고 하면서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김희정 평남도당위원회장은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고 후심한 피해를 입고 한지에 나앉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있는 피폐지역 인민들격으로 우리 당의 호소문을 접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희망 하늘을 우리 머리 위로 그려가며 최정발하여 하루빨리 피폐지역을 복구하겠다고 하면서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김희정 평남도당위원회장은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고 후심한 피해를 입고 한지에 나앉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있는 피폐지역 인민들격으로 우리 당의 호소문을 접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희망 하늘을 우리 머리 위로 그려가며 최정발하여 하루빨리 피폐지역을 복구하겠다고 하면서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김희정 평남도당위원회장은 일심단결의 거대한 위력으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고 후심한 피해를 입고 한지에 나앉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있는 피폐지역 인민들격으로 우리 당의 호소문을 접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희망 하늘을 우리 머리 위로 그려가며 최정발하여 하루빨리 피폐지역을 복구하겠다고 하면서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안고 북부피해복구전선에 물동들을 최우선적으로 수송할 불라는 결의에 넘쳐있다. -평양기관차에서-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며 날로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

캠보자국왕과 대왕후가 우리 나라 대사관에 대형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캄보디아왕국 국왕 노르돔 시하누키와 대왕후 노르돔 모니네트 시하누키가 7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대형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꽃바구니들의 덩어리는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씨가 적혀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령상에 국왕과 대왕후의 위엄에 따라 왕궁담장 부수상 받음돌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디아왕국왕 왕궁성대 단이 대형꽃바구니들을 선경하고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인민공화국이 창건될수 있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짧은 시간에 전쟁의 폐허를 가질수 있었으며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갖추수 있었다. 주석의 사상과 위업음 그대로 이어받은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봉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더욱 빛내여주시었다.

오늘 김정일동지께서는 높이 모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제 인민의 하나의 사상으로서 일심단결된 정치사상장강, 그 어떤 대적도 감히 털어버릴수 없는 불멸의 군사장강으로 위용될것이다.

행사장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라이주제사상연구소직 위원장은 조선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위대한 김정일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명도를 머나사 생각할수 없다고 하였다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계시고있기에 진정한 인민의 나라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으며 현명한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자애로운 인민의 어머니이다.

이만파의 친선관계발전과 만미사주위회업수령에 쌓아올린 주석의 불멸의 업적은 이만 인민의 기억속에 깊이 깃들었다.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해나가는 존경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장구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스페인의 새 유교슬라비아공산당, 기네 김일성기념사업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학자이안국조경위원회, 우간다 마케베페통대 학에서 3일과 4일에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스페인과 기네의 유교슬라비아공산당 총서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참다운 인민정치의 탄생은 새 세상에 섰는 대의의는 사면이었다고 하였다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인민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신데 기조하여 해방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제와 같이 단결된 인민의 힘으로 전진해나가는 혁명의 길에서 끊임없이 승리하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로 강화발전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부각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돌파하시고 사회주의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은 오늘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핵보유국으로 위용발전되고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뒷받치고 사회주의위업과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완수할것이라고 확신한다.

기네 김일성기념사업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학자이안국조경위원회, 우간다 마케베페통대 학에서 3일과 4일에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스페인과 기네의 유교슬라비아공산당 총서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참다운 인민정치의 탄생은 새 세상에 섰는 대의의는 사면이었다고 하였다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인민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신데 기조하여 해방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제와 같이 단결된 인민의 힘으로 전진해나가는 혁명의 길에서 끊임없이 승리하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로 강화발전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부각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돌파하시고 사회주의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은 오늘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핵보유국으로 위용발전되고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뒷받치고 사회주의위업과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완수할것이라고 확신한다.

기네 김일성기념사업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학자이안국조경위원회, 우간다 마케베페통대 학에서 3일과 4일에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스페인과 기네의 유교슬라비아공산당 총서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참다운 인민정치의 탄생은 새 세상에 섰는 대의의는 사면이었다고 하였다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인민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신데 기조하여 해방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제와 같이 단결된 인민의 힘으로 전진해나가는 혁명의 길에서 끊임없이 승리하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로 강화발전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부각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돌파하시고 사회주의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은 오늘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핵보유국으로 위용발전되고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뒷받치고 사회주의위업과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완수할것이라고 확신한다.

기네 김일성기념사업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학자이안국조경위원회, 우간다 마케베페통대 학에서 3일과 4일에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스페인과 기네의 유교슬라비아공산당 총서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참다운 인민정치의 탄생은 새 세상에 섰는 대의의는 사면이었다고 하였다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인민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신데 기조하여 해방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제와 같이 단결된 인민의 힘으로 전진해나가는 혁명의 길에서 끊임없이 승리하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로 강화발전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부각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돌파하시고 사회주의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은 오늘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핵보유국으로 위용발전되고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뒷받치고 사회주의위업과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완수할것이라고 확신한다.

기네 김일성기념사업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학자이안국조경위원회, 우간다 마케베페통대 학에서 3일과 4일에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스페인과 기네의 유교슬라비아공산당 총서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참다운 인민정치의 탄생은 새 세상에 섰는 대의의는 사면이었다고 하였다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인민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신데 기조하여 해방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제와 같이 단결된 인민의 힘으로 전진해나가는 혁명의 길에서 끊임없이 승리하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로 강화발전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부각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돌파하시고 사회주의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조선은 오늘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핵보유국으로 위용발전되고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뒷받치고 사회주의위업과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완수할것이라고 확신한다.

기네 김일성기념사업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학자이안국조경위원회, 우간다 마케베페통대 학에서 3일과 4일에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스페인과 기네의 유교슬라비아공산당 총서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참다운 인민정치의 탄생은 새 세상에 섰는 대의의는 사면이었다고 하였다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인민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신데 기조하여 해방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제와 같이 단결된 인민의 힘으로 전진해나가는 혁명의 길에서 끊임없이 승리하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로 강화발전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부각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돌파하시고 사회주의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었다.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타이에서... (text continues with similar content)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스페인의 새 유교슬라비아공산당, 기네 김일성기념사업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학자이안국조경위원회, 우간다 마케베페통대 학에서 3일과 4일에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스페인의 새 유교슬라비아공산당, 기네 김일성기념사업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학자이안국조경위원회, 우간다 마케베페통대 학에서 3일과 4일에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스페인의 새 유교슬라비아공산당, 기네 김일성기념사업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학자이안국조경위원회, 우간다 마케베페통대 학에서 3일과 4일에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스페인의 새 유교슬라비아공산당, 기네 김일성기념사업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학자이안국조경위원회, 우간다 마케베페통대 학에서 3일과 4일에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스페인의 새 유교슬라비아공산당, 기네 김일성기념사업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학자이안국조경위원회, 우간다 마케베페통대 학에서 3일과 4일에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사랑과 정으로 인민을 이끄시는분》 여러 나라 출판 보도물들 칭송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현명하고 사랑하시니 우리 인민에게 아무런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어 오늘날 현실의 빛과 밤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주석은... (text continues with similar content)

사람하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싶어서는분 이 세상에 없었다. 밑에서 시대의 《광명일보》는 인민들이 최고의 평명을 최상의 수준에서 누릴수 있도록 해주시려는 김정일주석의 구상을 따라 세워서 사회주의혁명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가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인민애사대가 인애는 오늘의 자랑찬 현실은 김정일주석의 사랑과 정으로 이루어진 현실이다.

황금해의 새 색사가 창조되고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는 속예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아름다운 사회주의경관과 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인민들은 사회주의보급제도의 혜택을 누리고있다.

어찌 인민이랴!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마시켄스키강과 미림총마루마루, 풍라인민유원지, 풍운총마루마루 등 인민의 문화휴식터마다다에 넘쳐나고있다.

인민을 위한 김정일주석의 말씀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전해질것이다.

에스파냐에 분부들 쓴 조선과 인민에 대한 인민애를 표시하고 《하나의 조세네트릭》은 세상에 국민을 위한다고 부르짖는 지도자들은 많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스페인의 새 유교슬라비아공산당, 기네 김일성기념사업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학자이안국조경위원회, 우간다 마케베페통대 학에서 3일과 4일에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스페인의 새 유교슬라비아공산당, 기네 김일성기념사업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학자이안국조경위원회, 우간다 마케베페통대 학에서 3일과 4일에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스페인의 새 유교슬라비아공산당, 기네 김일성기념사업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학자이안국조경위원회, 우간다 마케베페통대 학에서 3일과 4일에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스페인의 새 유교슬라비아공산당, 기네 김일성기념사업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학자이안국조경위원회, 우간다 마케베페통대 학에서 3일과 4일에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아프리카를 둘러싼 중일사이의 갈등

아프리카대륙을 둘러싼 중일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있다. 얼마전 일본은 케니아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아프리카발전에 관한 국제회의를 열어놓고 있다. 일본은 이 회의에서 대 중국경쟁의식을 언어없이 드러내놓고 있다.

이런 회의의 개막식에서 한 연설에서 일본은 인디안양과 해평양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번갈고있으며 일본은 두 대양을 《항해의 자유가 보장되고 범지구적 존중의 노릇》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프리카발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일본이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세심한 지원방식이라는 것이다.

중국의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아프리카발전에 관한 국제회의는 마케비 아프리카발전에 초점을 둔 다주적인 교류 및 협조의 무대여야 하며 그의 위치는 아프리카의 발전을 지원하는것이여야 한다. 그러나 수백수백억의 케니아에서 전방면 아프리카발전에 관한 국제회의의간 일본이 오히려 자국의 위치를 아프리카발전에 강요하여 사리를 추구하고 지어 중국과 아프리카사이에 리간을 조성하려고 시도한것이다.》라고 비난하였다.

중국인론들은 일본의 대 아프리카전조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리사국지위를 꿈꾸면서 언론사국지위를 노리는 일본을 급격히 불 나라가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혹평하였다.

8월 27일 《한구시보》는 케니아의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회의소식을 아껴 마한 화하여 언론전시화하고 야우주화하였다. 신화통신도 일본의 대 아프리카전조를 상임리사국지위를 노린 것임을 지적하였다.

일본의 《도요신보》는 당국의 조지에 대해 《정부는 아프리카에서 자금을 원조하는것으로 큰 제약을 높이고있는 중국에 대한 비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가장은 이슬람교사회의 힘이 사회적으로 불안을 야기하는 근본기조라고 하였다.

사람하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싶어서는분 이 세상에 없었다. 밑에서 시대의 《광명일보》는 인민들이 최고의 평명을 최상의 수준에서 누릴수 있도록 해주시려는 김정일주석의 구상을 따라 세워서 사회주의혁명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가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인민애사대가 인애는 오늘의 자랑찬 현실은 김정일주석의 사랑과 정으로 이루어진 현실이다.

황금해의 새 색사가 창조되고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는 속예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아름다운 사회주의경관과 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인민들은 사회주의보급제도의 혜택을 누리고있다.

어찌 인민이랴!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마시켄스키강과 미림총마루마루, 풍라인민유원지, 풍운총마루마루 등 인민의 문화휴식터마다다에 넘쳐나고있다.

인민을 위한 김정일주석의 말씀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전해질것이다.

에스파냐에 분부들 쓴 조선과 인민에 대한 인민애를 표시하고 《하나의 조세네트릭》은 세상에 국민을 위한다고 부르짖는 지도자들은 많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스페인의 새 유교슬라비아공산당, 기네 김일성기념사업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학자이안국조경위원회, 우간다 마케베페통대 학에서 3일과 4일에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스페인의 새 유교슬라비아공산당, 기네 김일성기념사업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학자이안국조경위원회, 우간다 마케베페통대 학에서 3일과 4일에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스페인의 새 유교슬라비아공산당, 기네 김일성기념사업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학자이안국조경위원회, 우간다 마케베페통대 학에서 3일과 4일에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스페인의 새 유교슬라비아공산당, 기네 김일성기념사업위원회, 주체사상연구소 학자이안국조경위원회, 우간다 마케베페통대 학에서 3일과 4일에 강연회가 진행되었다.